

## 『諸病源候論』中 「風病諸候」上에 대한 연구

徐銘振, 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 教室

Jaebuyongonehuuron(諸病源候論) is the one of a classics and concentrate the fruit of medicine before the age of Su(隋). This book state pathogenic factors and syndrome, and so this book is a technical book of etiology and pathology at the ancient time.

This book development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after the publication of Naekoung(內經), Nankoung(難經), Sanghaanjabboundron(傷寒雜病論).

The study of this book will make progress in etiology and pathogenesis.

This book is composed of 50 volumes, 67chapter, 1739 essay and contains internal medicine, surgery, gynecology, pediatry, otorhinology.

The contents of this book is build up by clinical experience for a long time.

A disease and syndrome of wind(風病諸候) is composed of two volume.

The contents of the first volume is CVA(中風), an aftereffect of a CVA, wind arthralgia(風痺), blood arthralgia(血痺), wind palpitation(風驚悸恐). The contents of the second volume is gout(歷節風), migratory pain of limb joints by wind(風身體疼痛), wind-cold(風冷), wind-heat(風熱), wind-Qi(風氣), depressive psychosis and mania(癲狂), wind vertigo(風眩), urticaria(隱疹), aversion to wind(惡風), leprosy(諸癩)

An etiological factor of these syndrome are closely connected with pathogenic wind (風邪). It result from invasion of pathogenic wind at the state of the deficiency of Zang-Fu-Qi-Blood(臟腑氣血).

There are some superstitious contents in this book and this book have been reprinted many times since the original book published. Therefore there are many printer's error and omissions or adds in this book.

So in this part we study a woodblock-printed book of successive generation and view of annotators, and add adding notes, adjustment, translation to exact comprehension of the original text.

『諸病源候論』은 한의학 古典中の 하나로 隋代以前の 醫學成果를 모두 結集하고 있다.

### I. 緒論

本書에서는 疾病의 病源과 證候를 集中的으로 論述하고 있어 古代 病因病理學의 專門書籍이라고 할 수 있다. 本書는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등의 서적이 나온 이후 한의학의 理論體系를 進一步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本書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의 病因病機學을 개발하는데 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本書는 모두 五十卷, 六十七門, 一千七百三十九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內容中에는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내용 중에는 전에 나왔던 醫書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쌓아온 임상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風病諸候는 上, 下 두 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上卷의 내용은 中風과 그 後遺症, 風痺, 血痺, 風驚悸恐 등으로 되어 있고, 下卷의 내용은 歷節風, 風身體疼痛, 風冷, 風熱, 風氣, 癲狂, 風眩, 隱疹, 惡風諸癩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證候들의 病因은 風邪와 관계가 있는데, 臟腑氣血이 虛해진 상태에서 外部의 風邪에 感觸되어 發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驚悸恐, 五臟恍惚, 鬼邪鬼魅 등은 후세에 神志門으로 분류하게 되었는데 이는 病의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여겨진다.

風病諸候 上卷에는 모두 二十九개의 증후를 論하고 있는데, 時代的인 한계 때문에 일부 迷信的인 내용이 섞여 있고 중복된 부분도 많다. 또한 原書가 출간된 이래 많은 세월이 거쳐 여러 차례 重刊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 錯誤로

탈락되거나 덧붙여진 부분도 있고 誤植, 誤字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을 참조하여 校勘을 하고 본 證候들에 대한 후세 醫家들의 견해를 발췌하여 비교하며,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考察·國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清代 周學海校刊本 『諸病源候論』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本문의 단락은 그 內容에 따라 二十九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마. 國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바.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引用文獻에 『00』으로 表示하였다.

### 2. 研究 資料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分布八方하야 主長養萬物<sup>2)</sup>이라 從其鄉來者<sup>(1)</sup>

番號	書名	略稱
1	元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元本
2	諸病源候論校釋 에서 引用한 文獻	明 汪濟川, 江瓘 巢氏諸病源候論
3		清 胡益謙經義齋刊活字本 巢氏諸病源候論
4		湖北官書處重刊本 巢氏病源
5		日本正保二年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6		黃帝內經素問
7	黃帝內經靈樞	靈樞
8	鍼灸甲乙經	甲乙
9	黃帝內經太素	太素
10	華佗中藏經	中藏經
11	注解傷寒論	傷寒論
12	金匱要略	金匱
13	肘後備急方	備急
14	劉涓子鬼遺方	鬼遺方
15	外臺秘要	外臺
16	備急千金要方	千金方
17	備急千金翼方	千金翼
18	太平聖惠方	聖惠方
19	聖濟總錄	總錄
20	脈經	脈經
21	醫心方	醫心方

### III. 本 論

#### 風病諸候上 凡二十九論

#### 第一章. 中風候

【原文】

中風者는 風氣<sup>1)</sup>中於人也라 風是四時之氣니

는 人中少死病하고 不從鄉來者<sup>3)(2)</sup>는 人中多死病이라 其爲病者는 藏於皮膚之間하야 內不得通하고 外不得泄하니 其入經脈하야 行於五臟者는 各隨臟腑而生病焉이라

心中風은 但得偃臥하야 不得傾側하고 汗出<sup>4)</sup>이라 若唇赤汗流者는 可治니 急灸心俞百壯<sup>(3)</sup>이요 若唇이 或青或黑或白或黃<sup>5)</sup>이면 此是心壞爲水<sup>(4)</sup>라 面目亭亭<sup>(5)</sup>이라가 時悚動<sup>(6)</sup>者<sup>(6)</sup>는 皆不可復治니 五六日而死라

肝中風은 但踞坐<sup>(7)</sup>하야 不得低頭라 若繞兩

日連額<sup>7)</sup>에 色微有靑하고 脣靑面黃者는 可治니 急灸肝俞百壯이요 若大靑黑하고 面一黃一白者는 是肝已傷이라 不可復治니 數日而死라

脾中風은 踞而腹滿하고 身通黃하며 吐鹹<sup>8)</sup>이라 汗出者<sup>9)</sup>는 可治니 急灸脾俞百壯이요 若手足靑者는 不可復治라

腎中風은 踞而腰痛<sup>10)</sup>이라 視脇左右에 未有黃色如餅粢<sup>6)</sup>大者는 可治니 急灸腎俞百壯이요 若齒黃赤하고 鬢髮直하며 頭面土色者<sup>11)</sup>는 不可復治라

肺中風은 偃臥而胸滿短氣하고 冒悶<sup>9)</sup>汗出이라 視目下와 鼻上下兩邊과 下行至口에 色白이면 可治니 急灸肺俞百壯이요 若色黃이면 爲肺已傷하야 化爲血<sup>10)</sup>이니 不可復治라 其人當妄<sup>12)(11)</sup>하야 掇空指地<sup>12)</sup>커나 或自拈衣尋縫<sup>13)</sup>하니 如此면 數日而死라

診其脈에 虛弱者도 亦風也요 緩大者도 亦風也요 浮虛者도 亦風也요 滑數者도 亦風也니 脈法은 總承上五臟言이라

【校 勘】

- 1) 風氣: 卷三十七「中風候」에는 '虛風'으로 되어 있다.
- 2) 主長養萬物: 卷三十七「中風候」에는 '生長養萬物'로 되어 있다.
- 3) 不從鄉來者: 卷三十七「中風候」에는 '不從其鄉來者'로 되어 있다.
- 4) 汗出: 『外臺』卷十四「中風及諸風方」에는 이 두 글자가 없고, 『中藏經』卷上第十七에는 '汗自出'로 되어 있다.
- 5) 若脣或靑或黑或白或黃: 『中藏經』卷上第十七에는 '若脣面或靑或黑或白或黃 其色不定'으로 되어 있다.
- 6) 面目亭亭 時悚動者: 『中藏經』卷上第十

七에는 '眼潤動不休者'로 되어 있다.

- 7) 若繞兩日連額: 卷三十七「中風候」에는 '若繞兩目連額上'으로 되어 있다.
- 8) 吐鹹: 卷三十七「中風候」에는 '吐鹹水'로 되어 있다.
- 9) 汗出者: 卷三十七「中風候」에는 '汗出'로 되어 있다.
- 10) 踞而腰痛: 『中藏經』卷上第十七에는 '踞而腰脚重痛'으로 되어 있다.
- 11) 頭面土色者: 卷三十七「中風候」에는 '面土色者'로 되어 있다.
- 12) 其人當妄: 『千金』卷八第一에는 '其人當妄言'으로 되어 있다.

【字 句 解】

- (1) 從其鄉來者: 『靈樞·九宮八風』에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 主生長養萬物"라 하였는데, 바람이 그 季節에 걸맞게 正常方位에서 불어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봄에 東風, 여름에 南風, 가을에 西風, 겨울에 北風이 불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 (2) 不從鄉來者: 『靈樞·九宮八風』에 "從其衝後來爲虛風 傷人者也 主殺主害者"라 하였는데, 바람이 그 계절에 맞지 않게 불어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봄에 西風, 여름에 北風, 가을에 東風, 겨울에 北風이 부는 현상을 말한다.
- (3) 壯: 뜬쪽의 單位를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의 뜬쪽을 一壯이라고 한다. 뜬을 뜨는 적절한 뜬쪽의 숫자를 壯年者를 기준으로 設定한 것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壯이라고 하였다.
- (4) 心壞爲水: 意味不詳.
- (5) 亭亭: 곧추 선 모양, 높이 솟은 모양. 여

기에서는 얼굴표정과 눈에 생기가 없음을 말함.

- (6) 悚動: 恐懼顫動.
- (7) 踞坐: 무릎을 세우고 쭈그러 앉는 자세.
- (8) 餅糝: 수수로 만든 떡.
- (9) 冒悶: 昏冒煩悶.
- (10) 化爲血: 意味不常.
- (11) 妄: 精神이 混亂함.
- (12) 撥空指地: 精神이 昏迷하여 無意識的으로 하늘을 휘젓고 땅을 가리킴.
- (13) 拈衣尋縫: 精神이 昏迷하여 無意識的으로 옷을 매만지거나 裁縫線을 찾음.

【考察】

1. '不從鄉來者'는 앞 글에 '從其鄉來者'로 되어 있고, 卷三十七「中風候」에 '不從其鄉來者'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傳寫過程中에 '其'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2. '若繞兩日連額'이 卷三十七「中風候」에 는 '若繞兩目連額上'으로 되어 있는데, '日'字는 '目'字의 誤字로 보인다.

3. '吐鹹'이 卷三十七「中風候」에 는 '吐鹹水'로 되어 있는데, '水'字가 있어야 말이 이어지므로 '吐鹹'은 '吐鹹水'의 惡植으로 보인다.

4. '汗出者'가 卷三十七「中風候」에 는 '汗出'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옳다.

5. 本篇에서 論述하고 있는 中風病과 五臟中風의 症狀은 『素問·風論』의 五臟風, 그리고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并治』의 五臟中風과는 모두 다르고, 『中藏經·風中有五生死

論』에 논술되어 있는 내용과는 大同小異하다. 參考로 원문을 拔萃해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素問·風論』의 五臟風

帝曰 五藏風之形狀不同者何 願聞其診及其病能

岐伯曰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皴然白 時欬短氣 晝日則差 暮則甚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 善怒嚇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噎乾 善怒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多汗惡風 面瘡然浮腫 脊痛不能正立 其色皁 隱曲不利 診在肌上 其色黑

(2)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并治』의 五臟中風

肺中風者 口燥而喘 身運而重 冒而腫脹

肝中風者 頭目暈 兩脇痛 行常偃 令人嗜甘

心中風者 翁翁發熱不能起 心中飢 食即嘔吐

脾中風者 翁翁發熱 形如醉人 腹中煩重 皮目潤而短氣

(3) 『中藏經·風中有五生死論』

心風之狀 汗自出而好偃臥 臥不可轉側 言語狂妄 若脣正赤者生 宜於心俞灸之 若脣面或青或黃或白或黑 其色不定 眼潤潤不休者 心絕也 不可救 過五六日即死耳

肝中之狀 青色圍目 連額上 但坐不得踞偃者 可治 若喘而目直視 脣面俱青者死 肝風宜于肝俞灸之

脾風狀 一身通黃 腹大而滿 不嗜食 四肢不收

持 若手足末青而面黃者可治 不然即死 脾風宜於脾俞灸之

腎中之狀 但踞坐而腰脚重痛也 視其脇下 未生黃點者可治 不然即死矣 腎風宜灸腎俞穴也

肺風之狀 胸中氣滿 冒味汗出 鼻不聞香臭 喘而不得臥者可治 若失血及忘語者不可治 七八日死 肺風宜於肺俞灸之

또한本篇에 기술되어 있는 五臟中風의 內容과 요즘의 腦血管疾患을 의미하는 中風과는 차이가 있는데, 여러 疾病에 나타날 수 있는 危重한 證候들을 五臟에 配屬시켜 그 病理機轉을 논술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 本篇에 보이는 '死病', '不可復治', '數日而死' 등의 句節은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런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조건에서 提示된 것으로서 오늘날에 와서는 診斷과 治法이 눈부시게 향상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은 그저 病의 形勢가 위중하여 豫後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본다.

【國譯】

中風이라는 것은 風氣가 사람에게 的中된 것이다. 風은 四時의 氣이니, 八方에 分布하여 주로 萬物을 기르는 것이다. 바람이 계절에 맞게 바른 方位에서 불어오는 경우에는 바람에 적응되어도 죽을 病은 적고, 계절에 걸맞지 않는 방위에서 불어 올 때에는 죽을 病이 많게 된다. 바람이 病이 되는 것은 皮膚의 사이에 바람이 쌓여서 안으로는 經脈의 氣運이 流通되

지 못하고 밖으로 邪氣가 發泄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바람이 經脈으로 들어가 五臟으로 가는 것은 각기 연관이 있는 臟腑를 따라 病을 발생시킨다.

心中風은 다만 누울 수만 있고 돌아눕지는 못하며 汗出하게 된다. 입술이 빨갛고 땀이 흐르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으니 급히 心俞에 뜬을 百壯 뜰 것이고, 만약 입술이 파랗거나 혹은 검거나 혹은 회거나 혹은 노라면 이것은 心이 무너져 물이 된 것이다. 面目이 生氣가 없다가 때로 공포감을 보이면서 떠는 사람은 다 치료할 수 없으니 五六日만에 죽는다.

肝中風은 걸터앉을 수만 있고 고개를 수그릴 수 없다. 두 눈에서부터 이마에 이르기까지 色이 약간 푸르고 입술이 푸르면서 얼굴이 노란 사람은 치료할 수 있으니 급히 肝俞에 뜬을 百壯 뜰 것이고, 上述 부위가 크게 푸르려 검게 보이고 얼굴이 때로 노랗다가 회었다가 하는 사람은 肝이 이미 傷한 사람이라서 다시 치료할 수 없으니 數日안에 죽게 된다.

脾中風은 걸터앉으면 腹滿하고 온 몸이 노라며 잔물을 吐하게 된다. 땀이 나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으니 급히 脾俞에 뜬을 百壯 뜰 것이고, 手足이 푸른 사람은 다시는 치료할 수 없다.

腎中風은 걸터앉으면 허리가 아프게 된다. 허리 左右를 둘러보았을 때에 수수떡 크기의 노란색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치료할 수 있으니 급히 腎俞에 뜬을 百壯 뜰 것이고, 이빨이 黃赤하고 수염과 모발이 뺏뺏하며 頭面이 흑색인 사람은 다시는 치료할 수 없다.

肺中風은 누우면 가슴이 脹滿하고 숨이 짧아지며 마음이 어두어지면서 답답하며 땀이 난다. 눈 아래와 코 위아래 양쪽과 아래로 내려

가서 입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色이 하야면 치료할 수 있으니 急히 肺俞에 뜸을 百壯 뜸 것이고, 만약 色이 노라면 肺가 이미 傷하여 血로 변화된 것이니 다시는 치료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精神이 혼란하여 허공을 휘 짓고 땅을 가리키거나 或 무의식적으로 옷을 매만지고 재봉선을 찾는 동작을 취할 것이니,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數日만에 죽게 된다.

그 脈을 전찰할 때에 虛弱한 사람도 風이고, 緩大한 사람도 風이며, 浮虛한 사람도 風이고, 滑數한 사람도 風이니, 脈法은 모두 위 五臟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 第二章. 風癘<sup>1)</sup>候

### 【原文】

風邪之氣 若先中於陰<sup>(1)</sup>하야 病發於五臟者는 其狀이 奄忽<sup>(2)</sup>不知人하며 喉裏噫噫<sup>(3)</sup>然有聲<sup>(3)</sup>하며 舌強不能言이라 發汗身軟者는 可治요 眼下及鼻人中左右上白者도 可治며 一黑一赤하며 吐沫者는 不可治<sup>(3)</sup>라 汗不出體直者는 七日死라

### 【校勘】

- 1) 風癘: 『千金方』卷八第一에는 ‘風謄’로 되어 있다.
- 2) 噫噫: 鄂本에는 ‘噫噫’로 되어 있다.
- 3) 眼下及鼻人中左右上白者可治 一黑一赤吐沫者不可治: 『千金方』卷八第一 林億校注에 ‘巢源作眼下及鼻人中左右上白者可治 一黑一赤吐沫者不可治’라 하였다.

### 【字句解】

- (1) 先中於陰: 陰은 五臟을 指稱하는 것이니,

風邪가 바로 五臟으로 들어가 病症을 일으킨 것으로 후세의 中臟證에 해당된다. 『素問·太陰陽明論』에 “陰受之則入五臟”이라 하였다.

(2) 奄忽: 突然과 같다.

- (3) 噫噫然有聲: 氣逆上衝해서 나오는 소리로 臨床上으로는 코고는 듯한 소리나 痰鳴음을 말한다.

### 【考察】

#### 1. 中風의 病因에 대하여

風癘은 후세의 中風病을 말한다. 中風의 病因에 대하여 唐宋以前에는 모두 外感의 侵襲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以後 많은 臨床經驗을 통하여 現代의 腦血管疾患은 外感中風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非風 혹은 內風이라는 論點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합리적인 病理認識으로서 오늘날에 와서 中風이라는 것은 주로 內因으로 발생하는 腦血管疾患으로 여기고 있으며 學者에 따라서는 外感中風은 眞中風으로 傷風, 內傷中風은 類中風으로 非風 혹은 內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眞中風과 類中風에 대한 論議는 金元四大家를 거치면서 提起되어 論爭이 거듭되다가 王安道 등에 의해 綜合되었다. 唐宋以前까지는 外感性中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研究記錄이 많고, 그 이후는 社會의 複雜化로 內傷性中風이 다발하여 이에 대한 研究成果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王安道の 中風辨에 金元四大家인 劉河間, 李東垣, 朱震亨의 類中風에 대한 견해를 比較分析하고 있는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履(元末明初의 醫學者)의 中風辨

人有卒暴僵仆하여 或偏枯 或四肢不舉 或不知人 或死 或不死者를 世以中風呼之요 而方書亦以中風治之라 余嘗考諸內經컨대 則曰風者百病之始也라하고 又曰風者百病之長也라하니 至其變化하여는 乃爲他病하여 無常方이라 又曰風者善行而數變이라하고 又曰風之傷人也에 或爲寒熱 或爲熱中 或爲寒中 或爲癘風 或爲偏枯 或爲風也라하니 其卒暴僵仆不知人四肢不舉者는 并無所論이요 止有偏枯一語而已라 及觀千金方컨대 則引岐曰中風大法有四하니 一曰偏枯요 二曰風非요 三曰風懿요 四曰風痺로 解之者라 偏枯者는 半身不隨요 風非者는 身無痛四肢不收요 風懿者는 奄忽不知人이요 風痺者는 諸痺類風狀이라 金匱要略中風篇曰 寸口脈浮而緊에 緊則爲寒이요 浮則爲虛니 寒虛相搏하여 邪在皮膚라 浮者는 血虛니 絡脈空虛한대 賊邪不瀉면 或左或右에 邪氣反緩하고 正氣即急하여 正氣引邪하여 喎僻不遂(支)라 邪在絡이면 肌膚不仁하고 邪在於經이면 卽克(重)不勝邪하고 入於腑면 卽不識人하고 邪入於臟舌이면 卽難言口吐涎沫이라하니 由是觀之면 知卒暴僵仆不知人偏枯四肢不舉等證이 固爲因風而致者矣라 故로 用大小續命西州續命排風八風等諸湯散治之요 及近代劉河間李東垣朱彥修三子者出所論하여 始與昔人異矣라 河間曰 中風癱瘓者 非謂肝木之風實甚而卒中之道 亦非外中於風이니 由乎將息失宜하여 心火暴甚하고 腎水虛衰하여 不能制之면 則陰虛陽實而熱氣拂鬱하여 心神昏冒하고 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也라 多因喜怒思悲恐五志有所過極而卒中者는 由五志過極이니 皆爲熱甚故也라 俗云 風者는 言末而忘其本也라하고 東垣曰 中風者는 非外來風邪니 乃本氣病也라 凡人年逾四旬하여 氣衰之際에 或因憂喜忿怒하여 傷其氣者 多有此疾이요 壯歲之時엔 無有也라 若肥盛則間有之니

亦是形盛氣衰而如此라하고 彥修曰 西北은 氣寒하니 爲風所中이 誠有之矣요 東南은 氣溫而地多濕하니 有風病者는 非風也니 皆濕土生痰하고 痰生熱하고 熱生風也라하니라 三子之論이 河間은 主乎火하고 東垣은 主乎氣하고 彥修는 主乎濕하여 反以風爲虛象而大異於昔人矣라 吁라 昔人也 三子也여 果孰是歟며 果孰非歟아 以三子爲是요 昔人爲非라도 則三子未出之前에 固有從昔人而治愈者矣요 以昔人爲是요 三子爲非라도 則三子已出之後에도 亦有從三子而治愈者矣라 故로 不善讀其書者는 往往致亂이라 予以觀之면 昔人三子之論이 皆不可偏廢니 但三子는 以相類中風之病으로 視爲中風而立論 故로 使後人으로 狐疑而不能決이나 殊不知因於風者는 眞中風也요 因於火因於氣因於濕者는 類中風而非中風也라 三子所論者는 自是因火因氣因濕而爲暴病暴死之證이니 與風으로 何相干哉리오 如內經所論所謂三陰三陽發病爲偏枯痿易四肢不舉도 亦未嘗必因於風而後能也라 夫風火氣濕之殊를 望聞問切之間에 豈無所辨乎리오 辨之爲風이면 則從昔人以治하고 辨之爲火氣濕이면 則從三子以治니 如此라야 庶乎析理明而用法當矣라 惟其以因火因氣因濕之證을 強引風而合論之하니 所以眞僞不分하여 而名實相紊이라 若以因火因氣因濕證을 分出之면 則眞中風病彰矣라 所謂西北有中風하고 東南無中風者는 其然歟아 否歟아

## 2. 風癘이라는 病名에 대하여

風癘은 『千金方』 卷八第一 「論雜風狀」 에 “岐伯曰 中風大法有四하니 一曰偏枯요 二曰風非요 三曰風懿요 四曰風痺라하니 夫諸急卒病은 多是風이라 初得輕微하여 人所不悟나 宜速與續命湯하고 依輸穴灸之라 夫風者는 百病之長이니 岐伯所言四者는 說其最重也라

偏枯者는 半身不隨하며 肌肉偏不用而痛하며 言不變智不亂하니 病在分膜之間이니 溫臥取汗이라 益其不足하고 損其有餘하면 乃可復也라 風痹者는 身無痛하며 四肢不收하며 智亂不甚하니 言微可知則可治요 甚卽不能言이니 不可治라 風懿者는 奄忽不知人하며 咽中塞窒然하며 舌強不能言하니 病在臟腑로되 先入陰하고 後入陽하니 治之先補於陰하고 後寫於陽하야 發其汗하야 身轉輒者는 生하고 汗不出身直者는 七日死라 風痺濕痺周痺筋痺脈痺肌痺皮痺骨痺胞痺는 各有證候하야 形如風狀하니 得脈別也라 脈微澀이면 其證身體不仁이라”하였는데, 여기에 記載된 風懿의 證狀이 風痺의 證候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보아 諸病源候論에 기재된 風懿이 후세에 風懿로 變化된 것으로 여겨진다.

【國譯】

風邪의 氣가 만약 먼저 陰部에 積중되어 病이 五臟에서 發生하는 경우에는 그 症狀이 忽然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나며 혀가 強直되어 말을 못하게 된다. 땀이 나면서 몸이 부드러운 사람은 치료가 되고, 눈 밑과 코 아래 人中左右의 위쪽이 하얀 사람도 치료가 가능하며, 검어졌다 붉어졌다 하면서 거품을 吐하는 경우는 치료가 어렵다. 땀이 나면서 신체에 強直現狀이 있는 경우에는 七日만에 죽게 된다.

第三章. 風口噤(1)候

【原文】

諸陽經筋<sup>(2)</sup>이 皆在於頭하되 三陽之筋이 並結入頷頰<sup>(3)</sup>하고 夾<sup>(4)</sup>於口<sup>(1)</sup>하니 諸陽이 爲風寒所客이면 則筋急 故로 口噤不開也라 診其脈遲

者는 生<sup>2)</sup>이라

【校勘】

- 1) 諸陽經筋 皆在於頭 三陽之筋 並結入頷頰 夾於口: 卷三十七「中風口噤候」에는 '諸陽經筋 皆在於頭 手三陽之筋 結入於頷頰 足陽明之筋 上夾於口'로 되어 있다.
- 2) 診其脈遲者生: 『中藏經』卷上第十七에는 '診其脈遲者生 脈急而數者死'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口噤: 입을 다물어 벌리지 못하는 증세.
- (2) 經筋: 經脈이 循行되는 體表部位의 筋肉系를 通稱하는 말.
- (3) 頷頰: 頷은 턱, 頰은 뺨을 말함.
- (4) 夾: 挾과 同 夾 협.

【考察】

原文中 '諸陽經筋 皆在於頭 三陽之筋 並結入頷頰 夾於口'가 卷三十七「中風口噤候」에는 '諸陽經筋 皆在於頭 手三陽之筋 結入於頷頰 足陽明之筋 上夾於口'로 되어 있고, '診其脈遲者生'이 『中藏經』卷上第十七에는 '診其脈遲者生 脈急而數者死'로 되어 있는데, 內容上 卷三十七「中風口噤候」와 『中藏經』卷上第十七의 記載가 精確한 것으로 보인다.

【國譯】

모든 陽經의 經筋은 다 머리에 분포하는데, 三陽의 經筋이 모두 턱과 뺨으로 모여 들어가고 입을 끼고 있으므로 모든 陽經에 風寒이 침범하게 되면 筋이 拘急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어 벌리지 않게 된다. 脈을 診察해서

느리게 뛰는 사람은 살게 된다.

#### 第四章. 風舌強不得語候

##### 【原文】

脾脈은 絡胃하야 夾咽하고 連舌本<sup>(1)</sup>하야 散舌下하며 心之別脈<sup>(2)</sup>은 系舌本하니 今心脾二臟이 受風邪 故로 舌強不得語也라

##### 【字句解】

- (1) 舌本: 舌根과 同.
- (2) 別脈: 經脈의 分枝를 말함.

##### 【國譯】

脾脈은 胃에 連絡이 되어 목을 끼고 있고 舌本에 이어져 舌下로 흩어지며, 心의 別脈은 舌本에 連繫되어 있는데 이제 心脾 二臟이 風邪를 받았기 때문에 혀가 뻣뻣해져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 第五章. 風失音不語候

##### 【原文】

喉嚨者는 氣之所以上下也요 會厭者는 音聲之戶요 舌者는 聲之機요 脣者는 聲之扇<sup>(1)</sup>이니 風寒이 客於會厭之間 故로 卒然無音이라 皆由 風邪所傷 故로 謂風失音不語라 養生方云 醉臥當風하면 使人發瘡이라하니라

##### 【校勘】

- 1) 舌者聲之機 脣者聲之扇: 『靈樞·憂恚無言』에는 '舌者音聲之機 口脣者聲之扇'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喉嚨: 喉頭를 말함.
- (2) 會厭: 吸門, 喉厭이라고도 한다. 喉頭의 위 앞쪽에 있는데 주걱처럼 생겼으며 앞에 서부터 뒤로 喉頭안을 덮어 준다. 숨을 쉬거나 말을 할 때는 열리고 음식을 먹거나 토할 때는 닫힌다.

##### 【國譯】

喉嚨은 氣가 오르고 내리는 곳이고, 會厭은 音聲의 門戶이며, 舌은 소리를 굴리는 機關이고, 脣은 소리가 일으키는 부채와 같은 것인데, 風寒이 會厭 사이로 침범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다 風邪에 의하여 손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風失音不語라고 한 것이다. 養生方에 말하기를 "술에 취해 누워서 바람을 맞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 第六章. 賊風候

##### 【原文】

賊風者는 謂冬至之日로 有疾風從南方來를 名曰虛風이라하니 此風이 至能傷害於人 故로 言賊風也라 其傷人也에 但痛不可得按抑<sup>(1)</sup>하고 不可得轉動하며 痛處體卒<sup>(2)</sup>無熱하니 傷風冷이면 則骨解<sup>(3)</sup>深痛하야 按之에 乃應骨痛也라 但 覺身內索索<sup>(4)</sup>冷하니 欲得熱物熨痛處면 卽小寬<sup>(5)</sup>하고 時有汗이라 久不去하야 重遇冷氣相搏이면 乃結成凍癰<sup>(6)</sup>及偏枯요 遇風熱氣相搏이면 乃變附骨疽<sup>(7)</sup>也라

##### 【校勘】

- 1) 索索: 『外臺』卷十四賊風方에는 '凜凜'으

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按抑: 重壓.
- (2) 卒: 끝내, 마침내 졸.
- (3) 骨解: 骨關節.
- (4) 索索: 原來 恐懼의 뜻이나 여기서는 惡寒戰慄의 의미임.
- (5) 寬: 輕減의 뜻임.
- (6) 癩癢: 림프節에 멍울이 생기는 病證으로 멍울이 작은 것을 癩, 큰 것을 癩라함.
- (7) 附骨疽: 朽骨疽, 疔疽라고도 하는데, 뼈에 고름이 생기는 病證임.

【考察】

本篇은 外來의 風邪에 感觸되어 나타나는 여러 疾病에 대한 기록으로 보이나 中風의 여러 證候와는 關聯性이 없다. 따라서 이 時節까지도 傷風과 中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國譯】

賊風이라는 것은 冬至日에 疾風이 南方에서 부터 불어오는 것을 虛風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지극히 사람을 잘 傷害하기 때문에 賊風이라고 하는 것이다. 賊風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는 다만 痛症때문에 按壓할 수 없고, 몸을 돌릴 수도 없으며 痛處部位에 전혀 熱感이 없으니, 이때에 만일 風冷의 侵襲을 받으면 骨關節 깊이 痛症이 있어 눌러보면 뼈에 통증이 應하게 된다. 이때에는 온 몸에 寒冷感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 이때에 따뜻한 물체로 痛處를 문지르면 통증이 조금 緩和하고 때로 땀이 나기도 한다. 오랫동안 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冷氣를 만나게 되면 바로 癩癢과 偏枯가 結成되고, 風熱을 만나게 되면 附骨疽로 變成하게 된다.

第七章. 風痙候

【原文】

風痙者是 口噤不開하고 背強而直하야 如發癩之狀이라 其重者는 耳中策策<sup>(1)</sup>痛이요 卒然身體痙直者는 死也라 由風邪傷於太陽經한대 復遇寒濕이면 則發痙也라 診其脈에 策策<sup>1)</sup>如弦하야 直上下者 風痙脈也라

【校勘】

- 1) 策策: 『脈經』 卷八第二에는 '築築'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策策: 策策은 慄慄의 假借字로 보이고, 慄慄은 小痛이나 刺痛의 뜻임.

【考察】

'診其脈 策策如弦'의 文中 策策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脈經』에 記載되어 있는 '築築'의 誤字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築築은 堅實한 모양새를 말한다.

【國譯】

風痙은 입을 다물어 벌리지 못하고 脊背가 強直하여 마치 癱瘓이 발생한 듯한 형상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에서도 重한 경우는 棘속이 찌르듯 痛症이 오는데, 갑자기 身體가 뻣뻣해지는 사람은 죽게 된다. 風邪로 말미암아 太陽經이 損傷당한 데다가 다시 寒濕을 만나게 되

면 瘳證이 발생한다. 그 脈을 진찰해서 弦처럼 堅實하여 바로 寸關尺三部를 貫通하는 脈이 風瘳脈이다.

### 第八章. 風角弓反張(1)候

【原文】

風邪傷人하여 令腰背反折하여 不能俯仰하여 似角弓者는 由邪入諸陽經故也라

【字句解】

(1) 角弓反張: 角弓이란 짐승의 뿔로 장식한 활을 말한다. 角弓反張이란 腰背가 뒤로 젖혀진 것이 마치 활을 뒤로 젖혀놓은 모양새와 흡사한 것을 말한다.

【國譯】

風邪가 사람을 傷하여 腰背를 뒤로 젖혀지게 하면 허리를 굽힐 수도, 들 수도 없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角弓과 흡사하게 되는 것은 邪氣가 陽經으로 들어간 때문이다.

### 第九章. 風口喎(1)候

【原文】

風邪入於足陽明手太陰之經에 遇寒이면 則筋急引頰 故로 使口喎僻하여 言語不正<sup>(2)</sup>而目不能平視라 診其脈에 浮而遲者는 可治라

【字句解】

(1) 口喎: 입이 삐뚤어지는 病證.  
(2) 言語不正: 發音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國譯】

風邪가 足陽明과 手太陰經에 들어갔는데 寒氣를 만나면 筋肉이 拘急되어 뺨을 당기게 된다. 그러므로 입이 삐뚤어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 脈을 진찰해 보았을 때에 浮하면서 느리게 떨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다.

### 第十章. 柔風候

【原文】

血氣俱虛하여 風邪并入에 在於陽이면 則皮膚緩하고 在於陰이면 則腹裏急이라 柔風之狀은 四肢不能收<sup>(1)</sup>하고 裏急不能仰이라

【字句解】

(1) 四肢不能收: 四肢를 收縮하지 못하는 症勢.

【國譯】

血氣가 모두 虛하여 風邪가 침범할 때에 風邪가 陽分으로 침입하면 皮膚가 弛緩되고, 陰分으로 침입하면 배속이 땅기게 된다. 柔風의 形狀은 四肢를 收縮하지 못하고 뺨가죽이 땅겨 허리를 펼 수 없는 것이다.

### 第十一章. 風痲候

【原文】

風痲<sup>(1)</sup>之狀은 身體無痛하며 四肢不收하며 神智不亂이라 一臂不隨<sup>(2)</sup>者는 風痲也<sup>(1)</sup>라 時能言者는 可治요 不能言者는 不可治라

【校勘】

1) 一臂不隨者 風痺也: 『脈經』卷十九治風痺諸方에는 이 여덟 글자가 없다.

【字句解】

- (1) 痺: 風病을 말함.
- (2) 不隨: 不遂와 같은 뜻으로 활동을 잘 못하는 증세.

【考察】

1. '一臂不隨者 風痺也'의 여덟 글자가 『脈經』卷十九治風痺諸方에는 없는데, 글의 첫머리에 이미 主語가 나오므로 이 여덟 글자는 후세의 衍文으로 보인다.
2. 본문에 나오는 風痺의 증상은 “身體無痛 四肢不收 神智不亂 一臂不隨者 風痺也 時能言者可治 不能言者不可治”로 되어 있는데, 本文의 出典은 『靈樞·熱病』에 “痺之爲病也 身無痛者 四肢不收 神亂不甚 其言微知可治 甚則不能言不可治也”라고 한 문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千金方』卷八論雜風狀에는 內經에 기재되어 있는 증상을 그대로 옮겨 “身無痛 四肢不收 神亂不甚 其言微知則可治 甚則不能言不可治”로 기록하고 있고, 『千金方』卷八風痺에는 “夫風痺者 卒不能語 口噤 手足不遂而彊直者是也”로 기록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당시의 醫家들이 病情의 輕重에 따른 차이점을 달리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偏枯와 風痺의 差異點은 『綱目』에 “痺는 廢也니 卽 偏枯之邪氣深者라 痺與偏枯는 是二疾이라 其 偏枯는 身偏痛而言不變하고 智不亂하니 病在 分腠之間이니 卽東垣所謂邪中府也요 痺病은 身無痛하고 四肢不遂而語瘖하며 智亂者니 邪入于裏니 卽東垣所謂邪中藏也라”하여 偏枯는

中腑로 輕症, 風痺는 中臟으로 重症으로 구분하고 있다.

【國譯】

風痺의 症狀은 身體에 痛症이 없고 四肢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며 精神은 어지럽지 않다. 또한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도 風痺證이다. 때때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

第十二章. 風濕退候

【原文】

風濕退者는 四肢不收하며 身體疼痛하며 肌肉虛滿하며 骨節懈怠<sup>(1)</sup>하며 腰脚緩弱하며 不自覺知가 是也라 由皮肉虛弱으로 不勝四時之虛風<sup>(2)</sup> 故로 令風邪侵於分肉之間하야 流於血脈之內하야 使之然也라 經久不瘥면 卽變成水病<sup>1)</sup>이라

【校勘】

- 1) 水病: 『外臺』卷十四風濕退方에는 '風水之病'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懈怠: 늘어지거나 나른해 짐을 말함.
- (2) 虛風: 그 季節에 걸맞지 않게 불어오는 바람.

【國譯】

風濕退의 症狀은 四肢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身體가 疼痛하며, 肌肉이 부석부석해지고, 骨節이 늘어지며, 腰脚이 虛弱해지고, 感覺이 鈍化되는 것이 이것이다. 皮肉의 虛弱으로 말

미암아 四時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므로 風邪로 하여금 分肉의 사이로 침범하게 하고 血脈안으로 흘러들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차도가 없으면 水腫病으로 變成한다.

### 第十三章. 風偏枯候

#### 【原文】

風偏枯者는 由血氣偏虛면 則腠理開하여 受於風濕이라 風濕이 客於半身하여 在分腠之間하여 使血氣凝滯하여 不能潤養이니 久不瘥하여 眞氣去<sup>1)</sup>하고 邪氣獨留면 則成偏枯라 其狀이 半身不隨하며 肌肉偏枯하여 小而痛<sup>2)</sup>하되 言不變하며 智不亂이 是也라 邪初在分腠之間이면 宜溫臥取汗<sup>(1)</sup>이요 益其不足하고 損其有餘면 乃可復也라 診에 其胃脈沈大하고 心脈小牢急이 皆爲偏枯라 男子則發左하고 女子則發右<sup>3)</sup>라 若不瘥하며 舌轉者는 可治니 三十日起요 其年未滿二十者<sup>4)</sup>는 三歲死라 又左手尺神門<sup>(2)</sup>以後脈足太陽經虛者는 則病惡風偏枯라 此는 由愁思所致와 憂慮所爲라 其湯熨針石은 別有正方이요 保養宣導<sup>(3)</sup>는 今附於後라

#### 【校勘】

- 1) 眞氣去: 『聖惠方』 卷二十三治中風不遂諸方에는 '漸少'로 되어 있다.
- 2) 小而痛: 『聖惠方』 卷二十三治中風不遂諸方에는 '小小而痛'으로 되어 있다.
- 3) 男子則發左 女子則發右: 『聖惠方』 卷二十三治中風不遂諸方에는 '男子則廢左 女子則閉右'로 되어 있다.
- 4) 其年未滿二十者: 鄂本에는 '其年未滿三十者'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溫臥取汗: 일반적으로 옷을 입은 채 누워 땀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 (2) 神門: 尺中을 말함.
- (3) 補養宣導: 養生導引을 말함.

#### 【考察】

1. '左手尺神門以後脈足太陽經虛者'의 神門은 원래 手少陰心經의 經穴名이나, 여기서는 尺中을 가리킨다. 이 문구는 脈經에서 유래한 것으로 『脈經』 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에 '左手尺神門以後脈陽虛者 足太陽經也 病苦脚中筋急 腹中痛 引腰背不可屈伸 轉筋惡風偏枯腰痛外踝後痛'이라 하였다.

#### 【國譯】

風偏枯病은 한 쪽의 血氣가 부족하면 腠理가 열려 風濕을 받게 된다. 이 風濕이 몸 한 쪽으로 침입하면 分腠의 사이에 머물러 血氣를 凝滯시켜서 筋肉을 潤養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않아 眞氣가 사라지고 邪氣만이 머물게 되면 偏枯를 형성하게 된다. 그 形狀이 半身을 쓰지 못하게 되고 肌肉이 한 편으로 말라 약간씩 통증이 있으나 말은 정상시처럼 하고 정신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이 증세다. 邪氣가 初期에 分腠의 사이에 있으면 마땅히 몸을 따듯이 하고 누워 땀을 충분히 낼 것이고, 아울러 不足한 면을 더하고 有餘한 곳을 瀉하면 회복할 수 있다. 診察에 있어 그 胃脈이 沈大하고 心脈이 小牢急한 것은 다 偏枯가 된다. 대개 男子는 左側에 발생하고 女子는 右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말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혀가 원활하게 도는 사람은 治療가 되니 三十日쯤이면 일어날 것이고,

나이 二十未滿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三年쯤 이면 죽게 된다. 또 左手尺中以後脈의 足太陽經이 虛한 사람은(尺中陽虛者) 바로 惡風 偏枯를 앓게 된다. 이는 憂愁 思慮 등의 內因에 의하여 발병된다. 그 湯熨과 針石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마련해 놓았고 保養宣導의 방법은 뒤에 덧붙여 놓았다.

#### 第十四章.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

##### 【原文】

此는 由體虛로 腠理開하여 風邪在於筋故也라 春遇痺爲筋痺則 則筋屈이라 邪客關機<sup>(1)</sup>면 則使筋攣이요 邪客於足太陽之絡이면 令人肩背拘急也라 足厥陰은 肝之經也요 肝은 通主諸筋하야 王<sup>(2)</sup>在春하니 其經絡虛하야 遇風邪면 則傷於筋하야 使四肢拘攣하야 不得屈伸이라 診其脈에 急細如弦者는 筋急足攣也라 若筋屈不已<sup>(1)</sup>에 又遇於邪면 則移變入肝하니 其病狀이 夜臥驚하며 小便數이라

##### 【校勘】

1) 筋屈不已: 風痺候에는 '筋痺不已'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關機: 機關과 같은데, 關節의 뜻임.  
(2) 王: 旺과 同.

##### 【國譯】

이는 身體의 虛弱으로 腠理가 열려 風邪가 筋에 침범해서 생긴 것이다. 봄에 痺證이 생겨 筋痺가 되면 筋이 오그라든다. 邪氣가 關機에 침입하면 筋이 拘攣하게 되고, 邪氣가 足太陽의 絡脈에 침입하면 肩背가 拘急하게 된다. 足

厥陰은 肝經이고, 肝은 온 몸의 筋을 주관하여 봄에 그 기능이 왕성해지는데, 그 經絡이 虛해져 風邪를 만나게 되면 筋이 손상되어 四肢가 拘攣되므로서 屈伸을 못하게 된다. 그 脈을 진찰함에 활줄과 같이 急細한 경우에는 筋이 拘急되고 다리가 拘攣하게 된다. 만약 筋痺가 낫지 않았는데 또 邪氣를 만나면 병이 肝으로 轉移되니, 그 病狀이 밤에 누우면 깜빡깜빡 놀라고 小便을 자주 본다.

#### 第十五章. 風身體兩足不隨候

##### 【原文】

手足不隨者는 由體虛腠理開하여 風氣가 傷於脾胃之經絡也라 足太陰은 爲脾之經이요 脾與胃合<sup>(1)</sup>이며 足陽明은 爲胃之經이요 胃爲水穀之海也라 脾候는 身之肌肉이니 主胃消行水穀之氣<sup>1)</sup>하야 以養身體四肢라 脾氣弱即肌肉虛하야 受風邪所侵 故로 不能爲胃通行水穀之氣하야 致四肢肌肉無所稟受어늘 而風邪在經絡하야 搏於陽經이면 氣行則遲하야 關以縱<sup>2)</sup> 故로 令身體手足不隨也라 診에 脾脈緩者는 爲風痿니 四肢不用이요 又心脈<sup>(2)</sup>腎脈<sup>(3)</sup>俱至면 則難以言하며 九竅不通하며 四肢不舉하고 腎脈來多면 卽死也라

##### 【校勘】

- 1) 主胃消行水穀之氣: 『外臺』 卷十四風身體手足不遂方에는 '主爲胃消行水穀之氣'로 되어 있다.  
2) 關以縱: 『外臺』 卷十四風身體手足不遂方에는 '關機縱緩'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合: 表裏關係를 말함.

(2) 心脈: 洪脈을 말함.

(3) 腎脈: 沈脈을 말함.

【國譯】

手足不隨者는 身體의 虛弱으로 腠理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風氣가 脾胃의 經絡에 침입해서 생긴다. 足太陰은 脾의 經脈이고 脾는 胃와 표리관계를 이루며, 足陽明은 胃의 經脈이고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된다. 脾의 徵候는 몸의 肌肉에 나타나는데, 主로 胃로 하여금 水穀之氣를 消導, 運行시켜 身體의 四肢를 기른다. 脾氣가 弱하면 肌肉이 虛해져 風邪의 침범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胃로 하여금 水穀之氣를 通行시킬 수 없도록 하여 四肢의 肌肉이 營養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에 風邪가 經絡에 있어 陽經을 逼迫하게 되면 氣의 운행이 느려져 關節이 늘어지기 때문에 手足이 不隨하게 된다. 診察에 있어 脾脈部位가 緩한 사람은 風痿이니 四肢를 쓰지 못하게 되고, 또 心脈과 腎脈이 함께 이르면 말을 잘 할 수 없게 되고 九竅가 不通하며 四肢를 들 수 없게 되고, 腎脈이 많이 보이면 卽死하게 된다.

第十六章. 風半身不隨候

【原文】

半身不隨者<sup>1)</sup>는 脾胃氣弱하고 血氣偏虛하야 爲風邪所乘故也라 脾胃는 爲水穀之海니 水穀之精이 化爲血氣하야 潤養身體라 脾胃既弱이면 水穀之精이 潤養不周하야 致血氣偏虛하야 而爲風邪所侵 故로 半身不隨也라 診에 其寸口沈細<sup>2)</sup>를 名曰陽內之陰<sup>(1)</sup>이니 病苦悲傷不樂 惡聞人聲 少氣 時汗出 臂偏不舉라 又寸口偏絕者는 則偏不隨요 其兩手盡絕者는 不可治也라

【校勘】

1) 半身不隨者: 『外臺』卷十四風半身不遂方에는 '風半身不隨者'로 되어 있다.

2) 診其寸口沈細: 『外臺』卷十四風半身不遂方에는 '診其脈寸口沈細'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陽內之陰: 脈은 浮脈이 陽이고 沈脈이 陰이며, 關前이 陽이고 關後가 陰인데 現在 寸口脈이 沈細하므로 陽部位에 陰脈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임.

【考察】

1. '半身不隨者'가 『外臺』卷十四風半身不遂方에는 '風半身不隨者'로 되어 있는데, 題目이 風半身不隨로 되어 있고 다른 篇에도 전부 風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風半身不隨'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2. '診其寸口沈細'가 『外臺』卷十四風半身不遂方에는 '診其脈寸口沈細'로 되어 있는데, 文意上 이것이 옳다.

【國譯】

半身不隨라는 것은 脾胃의 氣가 弱하고 血氣가 偏虛해서 風邪가 침범한 것이다. 脾胃는 水穀之海가 되니 水穀의 精微가 血氣로 變化되어 身體를 潤養한다. 그런데 脾胃가 弱해 지면 水穀의 精微가 온몸을 두루 潤養치 못하여 血氣가 偏虛해지고, 그 결과로 風邪가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半身不隨가 된다. 診察에 있어 寸口脈이 沈細한 것을 陽部位에 陰脈이 나타났다고 하니, 病은 마음이 슬퍼져 기쁘지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기운이 없고 때로 汗出하며 한쪽 팔을 들지 못하게 된다.

또 寸口脈中 한쪽편의 맥이 끊어진 사람은 몸의 한쪽만 쓰지 못하게 되고, 양쪽 손의 脈이 다 끊어진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 第十七章. 偏風候

#### 【原文】

偏風者는 風邪가 偏客於身一邊也라 人體有偏虛者는 風邪가 乘虛而傷之라 故로 爲偏風也라 其狀이 或不知痛痒하고 或縱緩하고 或痺痛이 是也라

#### 【國譯】

偏風이라는 것은 風邪가 몸의 一邊으로 침입한 것이다. 人體에 偏虛가 있는 사람은 風邪가 그 虛한 틈을 타서 損傷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偏風이 되는 것이다. 그 形狀이 或 痛痒을 알지 못하거나 或 手足이 弛緩되어 수축이 되지 않거나 或 저리고 아픈 것이 이것이다.

### 第十八章. 風痺曳候

#### 【原文】

痺曳<sup>(1)</sup>者<sup>(1)</sup>는 肢體弛緩不收攝也라 人以胃氣養於肌肉經絡<sup>(2)</sup>也니 胃若衰損하야 其氣不實하야 經脈虛면 則筋肉懈惰<sup>(3)</sup> 故로 風邪搏於筋이라

#### 【校勘】

- 1) 痺曳者: 『外臺』卷十四風痺曳及攣臂方에는 '風痺曳者'로 되어 있다.
- 2) 經絡: 『外臺』卷十四風痺曳及攣臂方에는 '經脈'으로 되어 있다.
- 3) 胃若衰損 其氣不實 經脈虛則筋肉懈惰: 『外臺』卷十四風痺曳及攣臂方에는 '胃若衰損 其氣不實 氣不實則經脈虛 經脈虛則'

筋肉懈惰'로 되어 있다.

#### 【字句解】

(1) 痺曳: 中風病에 의하여 患者의 手足이 무력해져 잘 쓰지 못하는 증세.

#### 【考察】

1. 痺曳者: 『外臺』卷十四風痺曳及攣臂方에는 '風痺曳者'로 되어 있는데, 題目이 風痺曳로 되어 있고 다른 篇에도 거의 전부 字風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風痺曳'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國譯】

痺曳라는 것은 肢體가 弛緩되어 수축하기 힘든 것이다. 사람은 胃氣로 肌肉과 經絡을 기르는 것이니, 胃가 만약 衰損되어 그 氣가 不實해져 經脈이 虛하게 되면 筋肉이 힘이 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風邪가 筋으로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 第十九章. 風不仁候

#### 【原文】

風不仁者는 由榮氣虛衛氣實하야 風寒이 入於肌肉하야 使血氣行으로 不宜流일새라 其狀이 搔之皮膚如隔衣가 是也라 診에 其寸口脈이 緩則不仁<sup>(1)</sup>이라 不仁에 脈虛數者는 生하고 牢急疾者는 死라

#### 【校勘】

1) 緩則不仁: 元本에는 '緩則皮膚不仁'으로 되어 있다.

【國譯】

風不仁이라는 것은 榮氣는 虛하고 衛氣는 實하여 風寒이 肌肉으로 들어가 血氣의 運行이 원활히 流通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形狀이 皮膚를 긁는 것이 마치 옷을 사이에 두고 피부를 긁듯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이것이다. 診察에 있어 그 寸口脈이 緩하면 바로 不仁이다. 不仁病에 脈이 虛數한 사람은 살고, 牢急疾한 사람은 죽는다.

第二十章. 風濕候

【原文】

風濕者는 是風氣與濕氣共傷於人也라 風者는 八方之虛風이요 濕者는 水濕之蒸氣也라 若地下濕에 復少霜雪이던 其山水氣蒸이어늘 兼值暖이면 腠退하고 人腠理開하여 便受風濕이라 其狀이 令人懈惰하며 精神昏愼<sup>(1)</sup>라 若經久면 亦令人四肢緩縱不隨하고 入臟則暗瘧 口舌不收하고 或脚痺弱이면 變成脚氣라

【字句解】

(1) 精神昏愼: 精神昏亂.

【考察】

여기에서 論하고 있는 風濕證은 現在 우리가 알고 있는 風濕證과는 좀 다르다. 본 편의 “山水氣蒸 兼值暖 腠退”와 “或脚痺弱 變成脚氣”의 구절은 脚氣病의 설명에 가깝고, “入臟則暗瘧 口舌不收”의 구절은 脚氣病中 脚氣冲心の 증상과 유사하다. 『外臺』에는 本 徵候를 脚氣病條에서 다루어 風濕과 脚氣를 확연히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國譯】

風濕이라는 것은 風氣와 濕氣가 함께 사람을 傷하게 해서 생긴 것이다. 風이라는 것은 八方의 虛風이고, 濕이라는 것은 水濕이 蒸發된 氣運이다. 만약 地下에 濕이 많은데다 다시 서리와 눈이 적게 내리면 山水間에 있는 氣運이 蒸發되는데, 이때에 날씨가 따뜻하면 사람이 무력해져 腠理가 열리게 되므로서 바로 風濕을 받게 된다. 그 證狀이 사람을 권태롭게 하며 精神이 昏亂하게 된다. 만약 오래 낫지 않으면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四肢가 늘어져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 병이 臟으로 들어가면 말을 못하며 입술과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못하게 되고 或 다리가 저리고 弱해지면 脚氣로 變成되기도 한다.

第二十一章. 風痺候

【原文】

痺者는 風寒濕三氣雜至하여 合而成痺니 肌肉頑厚<sup>(1)</sup>하고 或疼痛이라 由人體虛로 腠理開라 故로 受風邪也라 病在陽曰風이요 在陰曰痺이요 陰陽俱病曰風痺<sup>(2)</sup>라 其以春遇痺者爲筋痺니 則筋屈이라 筋痺不已에 又遇邪者는 則移入肝하니 其狀이 夜臥則驚하며 飲多小便數이라 夏遇痺者爲脈痺니 則血澁不流<sup>(1)</sup>하야 令人萎黃이라 脈痺不已에 又遇邪者는 則移入心하니 其狀이 心下鼓하며 氣暴上하며 逆喘不通<sup>(2)</sup>하며 噎乾喜噫라 仲夏遇痺爲肌痺라 肌痺不已에 後遇邪者는 則移入脾하니 其狀이 四肢懈惰하며 發咳嘔汁이라 秋遇痺者爲皮痺니 則皮膚無所知라 皮痺不已에 又遇邪면 則移入於肺하니 其狀이 氣奔痛이라 冬遇痺者爲骨痺니 則骨重不可舉하며 不隨而痛이라 骨痺不已에 又遇邪면 則移入於腎하니 其

狀이 喜脹이라 診其脈에 大而澁者爲痺요 脈來急者도 爲痺라

【校勘】

- 1) 血澁不流: 『素問·痺論』에는 '血凝不流'로 되어 있다.
- 2) 心下鼓 氣暴上 逆喘不通: 『素問·痺論』에는 '脈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으로 되어 있고, 『聖惠方』卷十九治風痺諸方에는 '心下鼓氣 卒然逆喘不通'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肌肉頑厚: 肌肉의 感覺이 떨어진 상태를 말함.
- (2) 病在陽曰風 在陰曰痺 陰陽俱病曰風痺: 陽은 表로서 皮膚를, 陰은 裏로서 筋骨을 말함.

【考察】

1. '血澁不流'가 『素問·痺論』에는 '血凝不流'로 되어 있는데, 澁字는 凝字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착오로 보인다.
2. '仲夏遇痺爲肌痺'의 文句中 仲夏는 長夏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脾胃는 季節로 보아 長夏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國譯】

痺라는 것은 風寒濕의 三氣가 서로 섞여 체 내에 침입하므로서 생긴 것이니, 肌肉의 감각이 鈍해지고 或 疼痛이 오기도 한다. 이는 人體의 虛弱으로 腠理가 열려서 風邪를 받은 것이다. 病이 陽에 있는 것을 風이라 하고 陰에 있는 것을 痺라 하며 陰陽에 모두 病이 생긴 것을 風痺라 한다. 봄에 邪氣를 만나 痺證이

된 것은 筋痺가 되니, 그렇게 되면 筋이 구부러져 펴지지 않는다. 筋痺가 낫지 않았는데 또 邪氣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 肝으로 옮겨가니, 그 證狀이 밤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며 물을 많이 마시고 小便을 자주 본다. 여름에 邪氣를 만나 痺證이 된 것은 脈痺가 되니, 그렇게 되면 피가 멎쳐 흐르지 않아서 얼굴색이 누렇게 뜨게 된다. 脈痺가 낫지 않았는데 또 邪氣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 心으로 옮겨 들어가니, 그 증상이 가슴아래가 두근거리고 氣가 갑자기 위로 치솟아 오르며 호흡이 거칠어져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목이 마르고 자주 트림을 하게 된다. 仲夏에 邪氣를 만나 痺證이 된 것은 肌痺가 된다. 肌痺가 낫지 않았는데 後에 邪氣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 脾로 옮겨 들어가니, 그 증상이 四肢가 늘어지고 咳嗽가 발생하며 汗을 토하게 된다. 가을에 邪氣를 만나 痺證이 되는 것은 皮痺가 되니, 그렇게 되면 皮膚에 감각이 없게 된다. 皮痺가 낫지 않았는데 또 邪氣를 만나게 되면 병이 肺로 옮겨 들어가니 그 증상이 氣가 上冲되면서 痛症이 오게 된다. 겨울에 邪氣를 만나 痺證이 되는 것은 骨痺가 되니, 그렇게 되면 뼈마디가 무거워 舉動을 잘 못하게 되고 四肢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아프게 된다. 骨痺가 낫지 않았는데 또 邪氣를 만나게 되면 병이 腎으로 옮겨 들어가니, 그 證狀이 잘 붓게 된다. 脈을 診察해서 맥이 크면서 澁滯한 것이 痺證이고, 脈이 오는 것이 급한 것도 痺證이다.

第二十二章. 風濕痺候

【原文】

風濕痺病之狀은 或皮膚頑厚하고 或肌肉酸痛이라 風寒濕三氣雜至하여 合而成痺로되 其風濕氣多而寒氣少者가 爲風濕痺也라 由血氣虛면 則受風濕而成此病이라 久不瘥면 入於經絡이로되 搏於陽經이면 亦變하여 令身體手足不隨라

【國譯】

風濕痺病의 證狀은 或 皮膚의 감각이 둔해 지거나 或 肌肉이 시큰거리면서 아픈 것이다. 風寒濕의 三氣가 섞여 體內에 침입하므로써 痺證을 형성하되, 그 風濕의 氣는 많고 寒氣는 적은 것이 風濕痺가 된다. 血氣가 虛하면 風濕의 침입을 받아 이 病이 형성된다.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經絡으로 들어가되, 陽經으로 침입해 들어가면 또한 病이 轉變되어 身體와 手足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第二十三章. 風痺手足不隨候

【原文】

風寒濕三氣合而爲痺로되 風多者爲風痺니 風痺之狀은 肌膚盡痛이라 諸陽之經은 盡起於手足하여 而循行於身體라 風寒之客肌膚에 初始爲痺나 後傷陽經하여 隨其虛處而停滯하여 與血氣相搏이면 血氣行이 則遲緩하여 使機關弛縱 故로 風痺而復手足不隨也라

【國譯】

風寒濕의 三氣가 合하여져 痺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風이 많은 경우는 風痺가 되니, 風痺의 形狀은 肌膚가 다 아픈 것이다. 모든 陽經은 다 手足에서 起始하여 身體로 循行된다. 風寒이 肌膚로 침입하면 始初에는 痺證이 되나, 나중에 陽經을 損傷하여 그 虛한 곳을

따라 停滯되어 血氣와 더불어 相搏하면 血氣의 運行이 바로 遲延되어 機關을 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風痺證狀이 있으면서 다시 手足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第二十四章. 風濕痺身體手足不隨候

【原文】

風寒濕三氣合而爲痺라 其三氣時來에 亦有偏多偏少로되 而風濕之氣偏多者를 名風濕痺也라 人腠理虛者는 則由風濕氣傷之하여 搏於血氣하여 血氣不行이면 則不宜하여 眞邪相擊하여 在於肌肉之間 故로 其肌膚盡痛이라 然諸陽之經은 宣行陽氣하여 通於身體하니 風濕之氣가 客在肌膚면 初始爲痺나 若傷諸陽之經이면 陽氣行이 則遲緩하여 而機關弛縱하고 筋脈不收攝 故로 風濕痺而復手足不隨也라

【國譯】

風寒濕의 三氣가 합쳐져 痺證이 된다. 그 三氣가 올 때에는 또한 多少가 있게 되는데 風濕의 氣가 많은 경우를 風濕痺라고 한다. 사람의 腠理가 虛한 경우에는 風濕의 氣運에 損傷을 받게 되는데, 이 風濕이 血氣를 疇박하여 血氣가 運行되지 않으면 血氣가 宣通하지 못하여 眞氣와 邪氣가 서로 공격하여 肌肉의 사이에 病이 있게 되므로 肌膚가 다 아프게 된다. 모든 陽經은 陽氣를 宣通, 運行시켜 身體로 流通되게 하니, 風濕의 氣가 肌膚에 침범하면 始初에는 痺證이 되나 만약 모든 陽經을 손상시키면 陽氣의 運行이 遲延되어 機關이 풀어지고 筋脈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風濕痺의 증상과 겹쳐서 手足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第二十五章. 血痺候

【原文】

血痺者는 由體虛로 邪入於陰經故也라 血爲陰이니 邪入於血而痺 故로 爲血痺也라 其狀은 形體如被微風所吹이라 此는 由憂樂之人<sup>1)</sup>으로 骨弱肌膚盛한대 因疲勞汗出커나 臥不時動搖하야 膚腠開하야 爲風邪所侵也라 診其脈에 自微溢在寸口而關上小緊이 血痺也니 宜可鍼引陽氣하야 令脈和緊去則愈라

【校勘】

1) 由憂樂之人: 『聖惠方』 卷十九治風血痺諸方에는 '由優樂之人'으로 되어 있다.

【考察】

'由憂樂之人'이 『聖惠方』 卷十九治風血痺諸方에는 '由優樂之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다. 글의 전체적인 뜻으로 보아 血痺는 富裕하고 歡樂의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多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國譯】

血痺는 身體虛弱으로 말미암아 邪氣가 陰經으로 들어가서 생긴 것이다. 血은 陰인데 邪氣가 피로 들어가 痺證이 된 것이므로 血痺가 된다. 그 形狀은 몸 속에서 微風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는 부유하고 歡樂을 일삼는 사람은 骨은 弱하고 肌膚는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심하게 움직여 땀을 내거나 잠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몸을 뒤척이게 되면 膚腠가 열려 風邪가 침범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脈을 진찰해서 寸口가 微溢하고 關上이 小緊한 것이 血痺이니, 마땅히 鍼으로 陽氣를 引導하여 脈을 調和시키므로써 緊脈이 除去되어야만 낫는다.

第二十六章. 風驚邪候

【原文】

風驚邪者는 由體虛로 風邪傷於心之經也라 心爲手少陰之經也니 心氣虛則風邪乘虛하야 傷其經하야 入舍<sup>1)</sup>於心 故로 爲風驚邪也라 其狀은 乍<sup>2)</sup>驚乍喜하야 恍惚失常이 是也라

【字句解】

- (1) 舍: 停留의 뜻임.
- (2) 乍: 갑자기 사.

【國譯】

風驚邪라는 것은 신체의 虛弱으로 風邪가 心經을 損傷시킨 것이다. 心은 手少陰經인데 心氣가 虛하면 風邪가 이 虛한 틈을 타서 해당 經絡을 손상시키고 나중에는 心으로 들어가 머물게 되기 때문에 風驚邪가 되는 것이다. 그 證狀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다가 또 갑자기 기뻐하다가 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正상을 잃는 것이 이것이다.

第二十七章. 風驚悸候

【原文】

風驚悸者는 由體虛로 心氣不足하야 心之府<sup>1)</sup>爲風邪所乘커나 或恐懼憂迫<sup>1)</sup>이 令心氣虛어늘 亦受於風邪라 風邪搏於心이면 則驚不自安하고 驚不已면 則悸動不安이라 其狀은 目睛不轉而不能呼라 診其脈<sup>2)</sup>에 動而弱者驚悸<sup>2)</sup>也니 動則爲驚이요 弱則爲悸라

【校勘】

- 1) 心之府: 『外臺』 卷十五風驚悸方에는 '心

之經'으로 되어 있다.

2) 診其脈: 『金匱』卷十六에는 '寸口脈'으로 되어 있다.

【字 句 解】

(1) 迫: 精神緊迫 즉 심리적으로 과도한 緊張狀態에 있는 것을 말함.

(2) 驚悸: 驚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 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말함.

【國 譯】

風驚悸라는 것은 身體虛弱으로 心氣가 不足해져서 心府에 風邪가 침범하거나, 或은 恐懼나 憂愁 또는 정신적인 긴장으로 心氣가 虛해져 있는데 風邪에 감촉되어 일어난 것이다. 風邪가 心을 攪박하면 깜짝깜짝 놀래어 마음안정되지 못하게 되고 이 증상이 그치지 않으면 가슴까지 뛰어 不安해진다. 그 증상은 눈동자를 돌리지 못하게 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脈을 診察해서 動脈과 弱脈이 나오는 것이 驚悸이니, 動脈이 나오면 驚이고, 弱脈이 나오면 悸이다.

第二十八章. 風驚恐候

【原 文】

風驚恐者是 由體虛受風하여 入乘臟腑니 其狀이 如人將捕之라 心虛則驚하고 肝虛則恐이라 足厥陰爲肝之經이니 與膽合이요 足少陽爲膽之經이니 主決斷衆事라 心肝虛而受風邪<sup>1)</sup>한대 膽氣又弱而爲風所乘이라 故로 恐如人將捕之<sup>2)</sup>라

【校 勘】

1) 心肝虛而受風邪: 『外臺』卷十五風驚恐方

에는 '心肝既虛而受風邪'로 되어 있다.

2) 恐如人將捕之: 『外臺』卷十五風驚恐方에는 '驚恐如人將捕之'로 되어 있다.

【國 譯】

風驚恐은 身體虛弱으로 風邪를 받아, 이 風이 臟腑로 침입해서 생긴 것이다. 그 證狀이 마치 사람이 잡으러 오는 것과 같다. 心虛하면 驚하고 肝虛하면 恐하게 된다. 足厥陰은 肝經이니 膽과 더불어 포리를 이루고, 足少陽은 膽經이니 主로 모든 일을 決斷한다. 心肝이 虛하여 風邪를 받은 데다가 膽氣가 또 弱하면 風이 침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恐怖感이 생겨 마치 사람이 잡으러 오는 것과 같게 된다.

第二十九章. 風驚候

【原 文】

風驚者是 由體虛로 心氣不足하여 爲風邪所乘也라 心藏神而主血脈하니 心氣不足則虛<sup>1)</sup>하고 虛則血亂하고 血亂則氣并於血하니 氣血相并한대 又被風邪所乘 故로 驚不安定<sup>2)</sup>하니 名爲風驚이라 診其脈에 至<sup>1)</sup>如數이면 使人暴驚이라 가 三四日에 自己라

【校 勘】

1) 心氣不足則虛: 『聖惠方』卷二十治風驚諸方에는 '心氣不足則血'로 되어 있다.

2) 驚不安定: 『聖惠方』卷二十治風驚諸方에는 '多驚心神不安定'으로 되어 있다.

【字 句 解】

(1) 至: 脈搏數를 말함.

## 【考 察】

以上 風驚邪候, 風驚悸候, 風驚恐候, 風驚候의 네가지 證候는 風驚悸恐의 發病原因과 臨床 症勢를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좀 다른 듯 하지만 서로 관련성이 있다. 證候面에서 보면 風驚은 “驚而脈數”하고, 風驚邪는 “乍驚乍喜 恍惚失常”하며, 風驚悸는 “目睛不轉而不能呼”하고, 風驚恐은 “驚恐如人將捕之”로 되어 있는데, 輕重緩急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發病原因은 비록 精神感情上으로 憂慮, 恐懼, 肝膽虛怯 등이 원인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心虛로 인해 風邪가 侵入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證候들은 風病諸候에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 【國 譯】

風驚이라는 것은 身體虛弱으로 인하여 心氣가 不足해진 상태에서 風邪의 침입을 입어 생긴 것이다. 心은 神을 간직하고 있고 血脈을 주관하는데, 心氣가 不足하면 虛해 지고 虛해지면 血亂해지고 血亂해지면 氣가 血에 併合된다. 氣血이 서로 병합되어 있는데 또 風邪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 安定을 하지 못하므로 風驚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脈을 진찰해서 脈搏이 數脈에 가까우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되나 三四日이면 저절로 낫는다.

## IV. 結 論

1. 第一章의 ‘不從鄉來者’는 ‘不從其鄉來者’가 傳寫過程中에 ‘其’字가 탈락된 것으로, ‘若繞兩日連額’에서 ‘日’字는 ‘目’字의 誤字로, ‘吐鹹’은 ‘吐鹹水’의 誤植으로, ‘汗出者’는 文義上 ‘汗出’로 보는 것이 옳다. 中風病과 五臟中風의 症狀는 『素問·風論』의 五臟風, 그리고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并治』의 五臟中風과는 모두 다르고, 『中藏經·風中有五生死論』에 논술되어 있는 내용과는 大同小異하다.
2. 第二章에서 논하고 있는 風癩은 후세 中風病을 말한다. 中風의 病因에 대하여 唐宋以前에는 모두 外感의 侵襲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以後 많은 臨床經驗을 통하여 現代의 腦血管疾患은 外感中風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非風 혹은 內風이라는 論點을 제시하게 되었다. 風癩이라는 病名은 후세의 風懿의 證候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보아 『諸病源候論』에 기재된 風癩는 후세에 風懿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3. 第二章의 原文中 ‘諸陽經筋 皆在於頭 三陽之筋 並結入頰頰 夾於口’가 卷三十七 「中風口噤候」에는 ‘諸陽經筋 皆在於頭 手三陽之筋 結入於頰頰 足陽明之筋 上夾於口’로 되어 있고, ‘診其脈遲者生’이 『中藏經』 卷上第十七에는 ‘診其脈遲者生 脈急而數者死’로 되어 있는데, 內容上 卷三十七 「中風口噤候」와 『中藏經』 卷上第十七의 記載가 정확하다.
4. 第六章의 賊風候는 外來의 風邪에 感觸되어 나타나는 여러 疾病에 대한 기록으로 眞中風과는 聯關이 없다. 따라서 이 時節까지도 傷風과 中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第七章의 ‘診其脈 策策如弦’의 文句中 策策

은 『脈經』에 기재되어 있는 '築築'의 誤字가 아닌가 하며 築築은 堅實한 모양새를 말한다.

6. 第十一章의 '一臂不隨者 風痺也'의 여덟 글자는 후세의 衍文으로 보이며, 風痺의 증상은 "身體無痛 四肢不收 神智不亂 一臂不隨者 風痺也 時能言者可治 不能言者不可治"로 되어 있는데, 本文의 出典은 『靈樞·熱病』에 "痺之爲病也 身無痛者 四肢不收 神亂不甚 其言微知可治 甚則不能言不可治也"라고 한 문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偏枯와 風痺의 差異點은 偏枯는 中腑로 輕症, 風痺는 中臟으로 重症이다.
7. 第十三章의 '左手尺神門以後脈足太陽經虛者'에서 神門은 원래 手少陰心經의 經穴名이나, 여기서는 尺中을 가리키는 것으로 『脈經』에서 유래하였다.
8. 第十六章의 '半身不隨者'는 '風半身不隨'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診其寸口沈細'는 '診其脈寸口沈細'가 옳다.
9. 第十八章의 '痺曳者'는 '風痺曳'가 맞다.
10. 第二十章에서 論하고 있는 風濕證은 現在 우리가 알고 있는 風濕證과는 좀 다르다. "山水氣蒸 兼值暖 脹退"와 "或脚痺弱 變成脚氣"는 脚氣病에 가깝고, "入臟則暗瘧 口舌不收"는 脚氣病中 脚氣沖心의 증상과 유사하다.
11. 第二十一章의 '血痰不流'中 痰字는 凝字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착오로 보이고, '仲夏遇痺爲肌痺'의 文句中 仲夏는 長夏의 착오로 보인다.

12. 第二十五章의 '由憂樂之人'은 '由優樂之人'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13. 第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章에서 다루고 있는 風驚邪候, 風驚悸候, 風驚恐候, 風驚候의 네 가지 證候는 風驚悸恐의 發病原因과 臨床症勢를 표현하고 있는데 輕重緩急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그 發病原因中 공통적인 것은 心虛로 인해 風邪가 침입하여 생긴 것이다.

## V. 參考文獻

1.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70年.
2.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4. 河北醫學院: 黃帝內經靈樞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8. 楊上善: 缺卷覆刻黃帝內經太素(仁和寺本),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9. 華陀: 華陀中藏經, 自由出版社.
10. 張仲景原著, 成無已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1. 李克光主編：金匱要略譯釋，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5.
12. 葛洪：中國醫學大系 卷二 肘後備急方，麗江出版社，1988.
13. 劉涓子：歷代中醫珍本集成 卷二十四 劉涓子鬼遺方，上海三聯書店，1990.
14. 王燾：外臺秘要，臺北，國立中國醫藥研究所 民國53年.
15.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 大星文化社 1989.
16. 孫思邈：備急千金翼方，서울 大星文化社 1989.
17. 王懷隱 等編：太平聖惠方，北京，平常心出版社，1988.
18. 趙佶：聖濟總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19. 王叔和原著，福州市人民醫院校釋：脈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20. 丹波康賴：醫心方，人民衛生出版社，1986.